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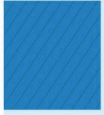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통계로 보는 여성

- 통계로 보는 여성 건강

한진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통계로 보는 여성 건강¹⁾

한진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지난 10년(2013~2022)간 음주, 흡연, 유산소 신체활동, 비만, 주관적 건강인지 정도 그리고 스트레스 인지율을 통해 성별 연령별 건강 행태의 변화를 살펴봄.

- 음주

□ 19~29세 여성의 고위험음주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나 남성은 낮은 편으로 남녀 간 격차가 작은 편

- (고위험음주율) 2022년 고위험음주율이 여성은 7.0%, 남성은 21.3%로 여성과 남성 간 차이는 14.3%p임.

- 2021년 대비 2022년 고위험음주율은 여성이 0.1%p, 남성이 1.6%p 증가함.
- 2013년 대비 2022년 고위험음주율은 여성이 1.5%p, 남성이 1.6%p 증가함. 여성은 2020년 이후 상승하고, 남성은 2019년 이후로 증감은 있으나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여성 고위험음주율(%): ('13년) 5.5% → ('17년) 7.2% → ('22년) 7.0%

* 남성 고위험음주율(%): ('13년) 19.7% → ('17년) 21.0% → ('22년) 21.3%

1) 본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센터의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제3장 건강임. 2024년 분기별로 총 4장의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임.

(단위: %)



주 : 1) 고위험음주율: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을.

2) 만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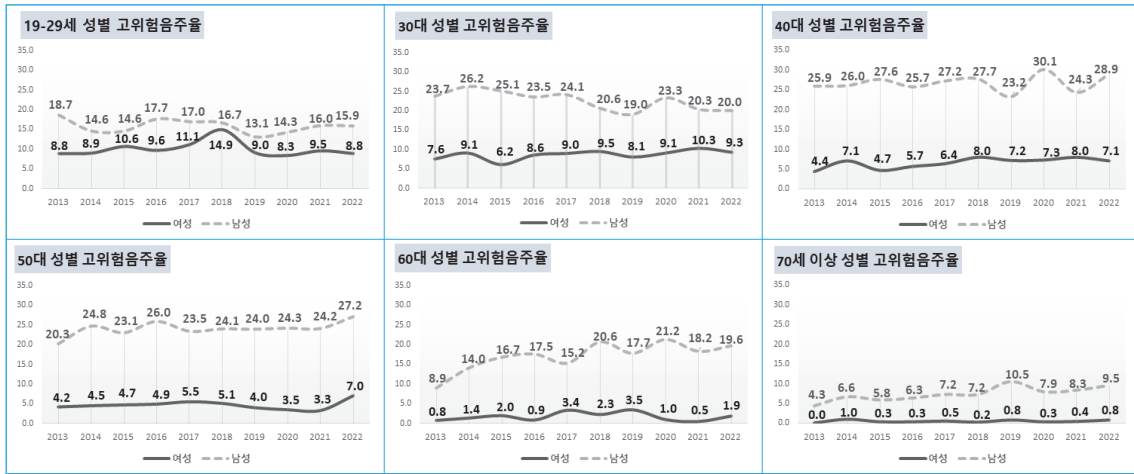
3) 표준화 : 2005년 추계인구(장래인구추계, 2016.12. 공표)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KOSIS 고위험음주율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18&conn_path=13, 접속일: 2024. 9. 3.)

[그림 1] 성별 고위험음주율(2013~2022)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성별 연령별 고위험음주율을 살펴본 결과임.
 - ▶ 2013년 이래로 전 연령대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위험음주율이 낮고 40~50대에서 남녀 간 격차가 큰 편임.
 - ▶ 70세 이상과 19~29세 고위험음주율의 성별 격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작음. 70세 이상은 여성과 남성 모두 고위험음주율이 낮기 때문에 남녀 간 격차가 작은 반면 19~29세 여성의 고위험음주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남성은 낮은 편으로 인해 격차가 작은 편임.
 - ▶ 40~50대의 고위험음주율이 남성은 높은 편이고 여성이 낮은 편으로 남녀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 ▶ 30대는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여성과 남성 간 격차가 좁혀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고위험음주율이 남성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여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임. 60대의 고위험음주율은 여성은 증감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남성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남녀 간 격차가 커지는 모습을 보임.

(단위: %)



주 : 1) 고위험음주율: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을.

2) 만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3) 표준화 : 2005년 추계인구(장래인구추계, 2016.12. 공표)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KOSIS 고위험음주율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18&conn_path=13, 접속일: 2024. 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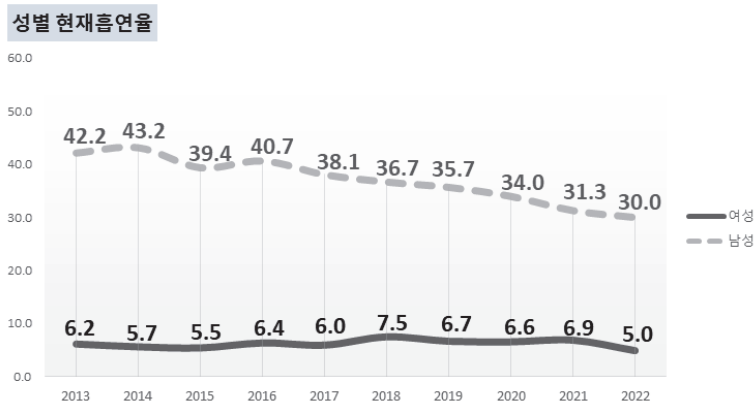
[그림 2] 성별 연령별 고위험음주율(2013-2022)

■ 흡연

□ 2013년 이래로 30대 남성의 현재흡연율이 빠르게 감소해 남녀 간 격차가 줄어들

- (현재 흡연율) 2022년 현재 흡연율이 여성은 5.0%, 남성은 30.0%로 여성과 남성 간 차이는 25.0%p임.
 - 2021년 대비 2022년 현재흡연율은 여성이 1.9%p, 남성이 1.3%p 감소함.
 - 2013년 대비 2022년 현재흡연율은 여성이 1.2%p, 남성이 12.2%p 감소하여 남녀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 여성 현재흡연율(%): ('13년) 6.2% → ('17년) 6.0% → ('22년) 5.0%
 - * 남성 현재흡연율(%): ('13년) 42.2% → ('17년) 38.1% → ('22년) 30.0%
 - 한편, 현재 일반담배(궐련)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 또는 액상형 전자담배 또는 기타 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분을 의미하는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022년 여성 7.2%, 남성 36.6%로 평생 일반담배(궐련)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일반담배(궐련)를 피우는 분을 의미하는 '현재흡연율'에 비해 여성은 2.2%p, 남성은 6.6%p 높게 나타남(<표 1> 참고).

(단위: %)



주: 1) 현재 흡연율: 평생 일반담배(궐련)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일반담배(궐련)를 피우는 분율.
2) 만19세이상 분석대상자 수.
3) 표준화: 2005년 추계인구(장래인구추계, 2016.12. 공표)로 연령표준화.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KOSIS 현재흡연율(일반담배(궐련) 기준)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01&conn_path=I3, 접속일: 2024. 9. 3.)

[그림 3] 성별 현재흡연율(2013~2022)

〈표 1〉 성별 · 연령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단위: %)

항목	연령별	2019		2020		2021		2022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	전체(표준화)	7.5	39.7	7.5	38.7	8.5	36.7	7.2	36.6
	19~29세	10.9	40.0	13.1	36.4	14.9	37.4	9.4	37.6
	30~39세	9.5	45.0	9.8	44.4	9.8	37.2	9.7	38.9
	40~49세	6.8	45.7	6.1	47.5	7.6	44.3	6.7	42.7
	50~59세	4.5	38.0	2.2	38.3	4.4	38.5	6.3	36.9
	60~69세	4.4	31.3	4.5	28.0	3.5	28.7	3.6	28.6
	70세이상	2.5	17.3	1.7	15.0	1.2	16.2	0.6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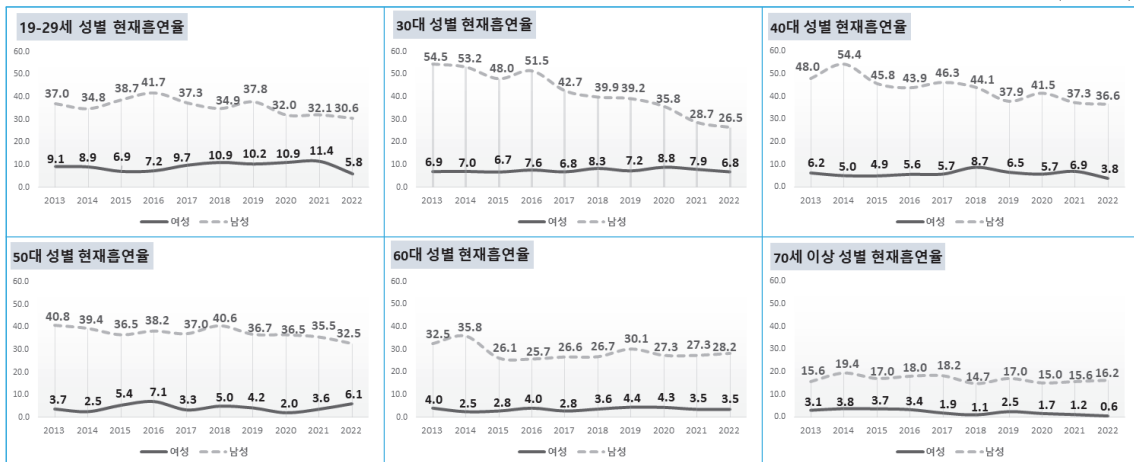
주: 1)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현재 일반담배(궐련)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 또는 액상형 전자담배 또는 기타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분율.
2) 만19세이상 분석대상자 수.
3) 표준화: 2005년 추계인구(장래인구추계, 2016.12. 공표)로 연령표준화.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KOSIS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만19세 이상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244&conn_path=I3, 접속일: 2024. 9. 3.)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성별 연령별 현재흡연율을 살펴본 결과임.
 - ▶ 2013년 이래로 전 연령대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현재흡연율이 낮음.
 - ▶ 30대의 현재흡연율을 보면 여성은 큰 변화가 없으나 남성은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크게 감소해 남녀 간 격차가 작아짐.
 - ▶ 19~29세 현재흡연율을 보면 여성은 2022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재흡연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남성의 현재흡연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남녀 간 격차가 작아지는 모습을 보임.

- ▶ 70세 이상 현재흡연율의 성별 격차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작는데 이는 남녀 모두 현재흡연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으면서 특히 남성의 현재흡연율이 낮기 때문임. 60~70대는 남녀 모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큰 변화가 없는 편으로 남녀 간 격차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임.
- ▶ 40~50대 남성의 현재흡연율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거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남녀 간 격차가 큰 편임. 40대 여성의 현재흡연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남녀 간 격차가 유지되나 50대 여성의 현재흡연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50대는 오히려 남녀 간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단위: %)



주: 1) 현재흡연율: 평생 일반담배(궤련)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일반담배(궤련)를 피우는 분을.

2) 만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3) 표준화: 2005년 추계인구(장래인구추계, 2016.12. 공표)로 연령표준화.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KOSIS 현재흡연율(일반담배(궤련) 기준)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01&conn_path=13, 접속일: 2024. 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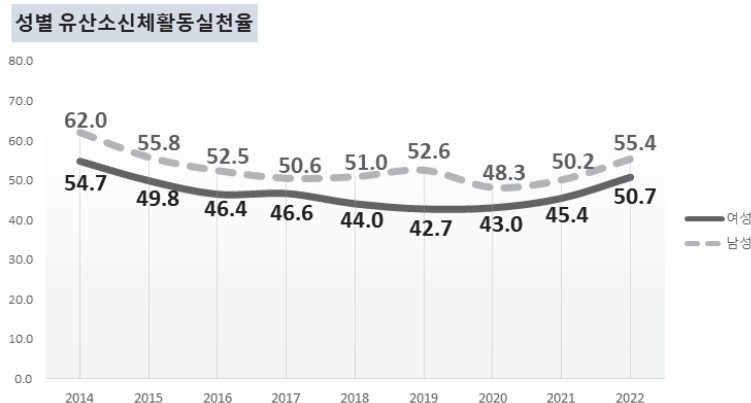
[그림 4] 성별 연령별 현재흡연율(2013~2022)

■ 신체활동 및 비만

-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은 70세 이상은 남녀 모두 낮으면서 여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낮고, 19~29세는 남녀 모두 높지만 남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기 때문에 19~29세와 70세 이상에서 남녀 간 차이가 있는 편으로 나타남.

-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2022년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은 여성 50.7%, 남성은 55.4%로 여성과 남성 간 차이는 4.7%p임.
- 2021년 대비 2022년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이 여성은 5.3%p, 남성은 5.2%p 증가함.
- 2014년 대비 2022년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이 여성은 4.0%p, 남성은 6.6%p 감소했으나 여성은 2019년, 남성은 2020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 여성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14년) 62.0% → ('17년) 50.6% → ('22년) 55.4%
- * 남성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14년) 54.7% → ('17년) 46.6% → ('22년) 50.7%

(단위: %)



주 : 1)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비율.
 2) 만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3) 표준화 : 2005년 추계인구(장래인구추계, 2016.12. 공표)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KOSIS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236&conn_path=I3, 접속일: 2024. 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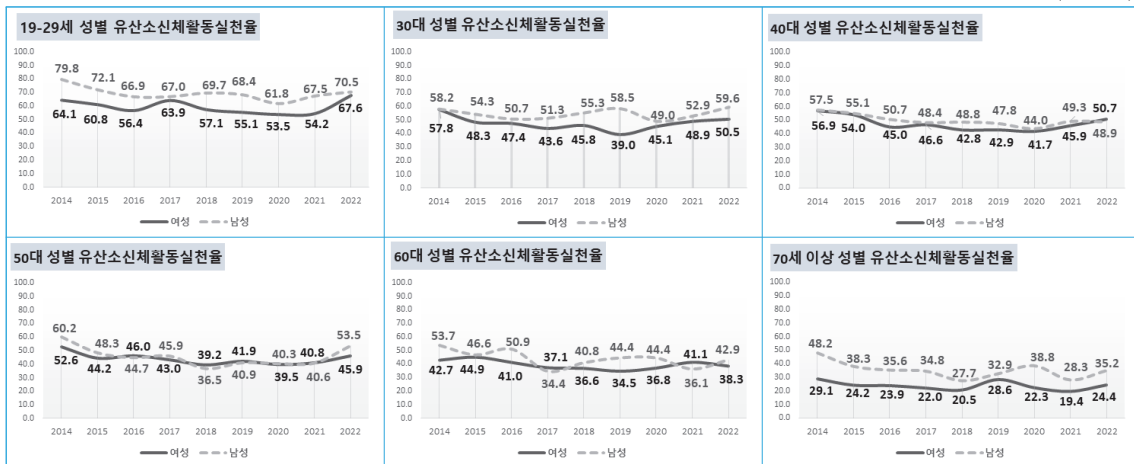
[그림 5] 성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2014~2022)

-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성별 연령별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을 살펴본 결과임.
- ▶ 2014년 이래로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이 남성은 여성에 비해 높은 편이나 40~50대의 여성과 남성의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 19~29세와 70세 이상은 남녀 간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차이가 있는 편임. 19~29세의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이 높은 수준이지만 남성이 두드러지게 높아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남. 다만, 19~29

세는 2022년 여성이 크게 증가해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매우 작아짐. 반면, 70세 이상은 남녀 모두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이 낮으면서 여성이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아 격차가 발생함.

- ▶ 30대의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은 남녀 모두 19~29세에 비해 낮아지면서 격차가 좁혀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0년 이후 남녀 간 차이가 커지는 모습을 보임. 40~50대는 30대에 비해 남성의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이 낮아지고, 여성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거나 남성에 비해서는 큰 변화가 없는 편으로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수준을 보임.
- ▶ 60대부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70세 이상부터는 남성의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이 여성에 비해 높아짐.

(단위: %)



주 : 1)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비율.

2) 만19세이상 분석대상자 수.

3) 표준화 : 2005년 추계인구(장래인구추계, 2016.12. 공표)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KOSIS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236&conn_path=13, 접속일: 2024. 9. 3.)

[그림 6] 성별 연령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2014-2022)

□ 30~40대 비만 유병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남성은 높고 여성은 낮은 편으로 남녀 간 격차가 큰 편임

- (비만 유병률) 2022년 비만 유병률은 여성이 25.7%, 남성이 47.7%로 여성과 남성 간 차이는 22.0%p임.
- 2021년 대비 2022년 비만 유병률이 여성은 1.2%p 감소했으나 남성은 1.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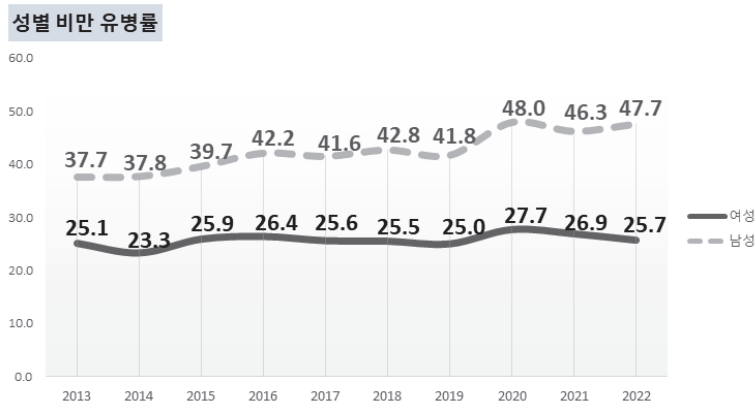
증가함.

- 2013년 대비 2022년 비만 유병률이 여성은 0.6%p, 남성은 10.0%p 증가해 여성은 큰 변화는 없는 편이나 남성은 높아지는 모습을 보임.

* 여성 비만 유병률(%): ('13년) 25.1% → ('17년) 25.6% → ('22년) 25.7%

* 남성 비만 유병률(%): ('13년) 37.7% → ('17년) 41.6% → ('22년) 47.7%

(단위: %)



주 : 1) 비만 유병률 : 체질량지수 25kg/m² 이상인 분율.

2) 만19세이상 분석대상자 수.

3) 표준화 : 2005년 추계인구(장래인구추계, 2016.12. 공표)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KOSIS, 비만 유병률(체질량지수 기준)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01&conn_path=I3, 접속일: 2024. 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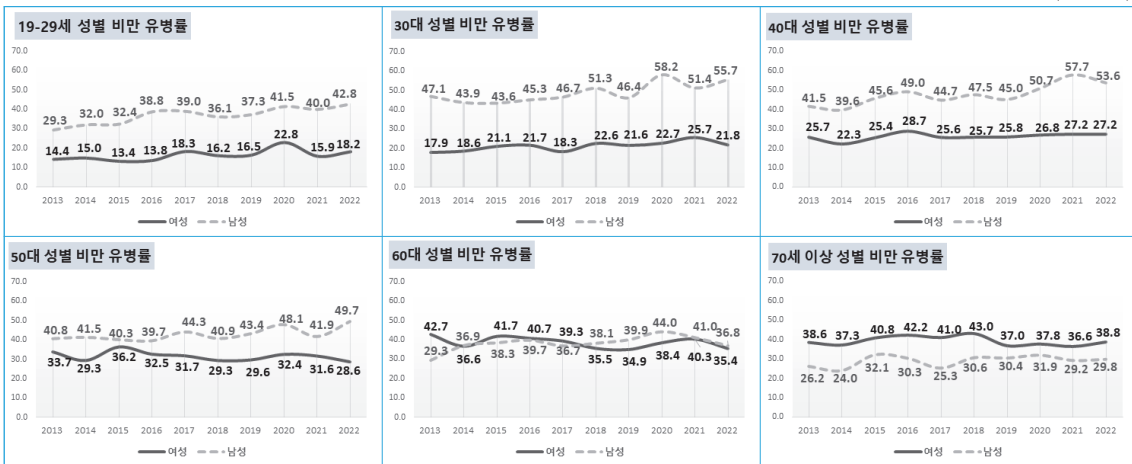
[그림 7] 성별 비만 유병률(2013~2022)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성별 연령별 비만 유병률을 살펴본 결과임.
 - ▶ 2013년 이래로 비만 유병률이 50대 이하의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고, 70세 이상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음. 60대는 여성과 남성이 유사한 수준을 보임.
 - ▶ 19~29세의 비만 유병률은 여성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남성도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남녀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 30대의 비만 유병률은 여성과 남성 간 차이가 큰 편인데 여성의 비만 유병률은 전반적으로 낮고 변화도 크진 않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남성은 비만 유병률이 높은 편이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남녀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짐. 40대의 비만 유병률은 여성이 30대에 비해 높아지고 남성은 비교적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남녀 간 격차가 여전히 크지만 그 차이는 조금씩 작아짐.
 - ▶ 50대는 여성의 비만 유병률이 40대에 비해 높아지고 남성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남성은 2021년 이후 증가하고 여성은 2020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남녀 간 격차는 커짐.

- ▶ 60대 미만 유병률은 50대 이하에 비해 여성은 높은 수준이고 남성은 낮은 수준으로 남녀가 비슷한 수준을 보임. 70세 이상의 비만 유병률은 60대에 비해 남성은 더 낮아지고 여성은 높아져 여성의 비만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아짐.

(단위: %)



주 : 1) 비만 유병률 : 체질량지수 25kg/m² 이상인 분율.

2) 만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3) 표준화 : 2005년 추계인구(장래인구추계, 2016.12. 공표)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KOSIS, 비만 유병률(체질량지수 기준)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01&conn_path=I3, 접속일: 2024. 9. 3.)

[그림 8] 성별 연령별 비만 유병률(2013~2022)

■ 건강 인식

□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2020년 이후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하여 주관적 건강 인식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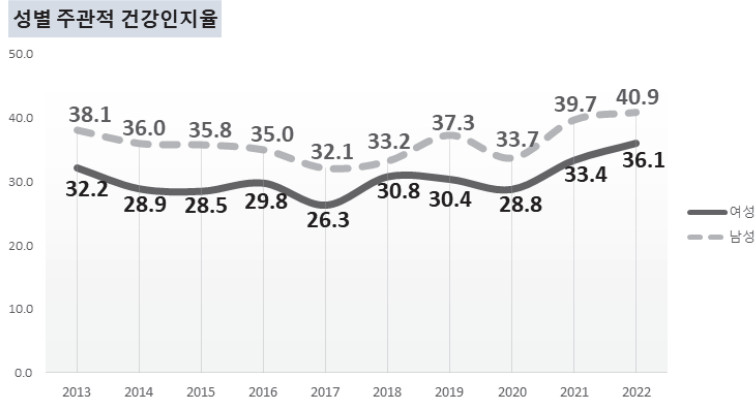
- (주관적 건강인지율) 2022년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여성은 36.1%, 남성은 40.9%로 여성과 남성 간 차이는 4.8%p로 남성이 본인의 건강을 좋다(매우좋음+좋음)고 판단하는 비중이 더 높음.
- 2021년 대비 2022년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여성이 2.7%p, 남성이 1.2%p 증가해 남녀 모두 주관적 건강 인식이 개선됨.

- 2013년 대비 2022년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여성이 3.9%p, 남성이 2.8%p 증가함.

* 여성 주관적 건강인지율(%): ('13년) 32.2% → ('17년) 26.3% → ('22년) 36.1%

* 남성 주관적 건강인지율(%): ('13년) 38.1% → ('17년) 32.1% → ('22년) 40.9%

(단위: %)



주 : 1) 주관적 건강인지율 :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을.

2) 만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3) 표준화 : 2005년 주계인구(장래인구추계, 2016.12. 공표)로 연령표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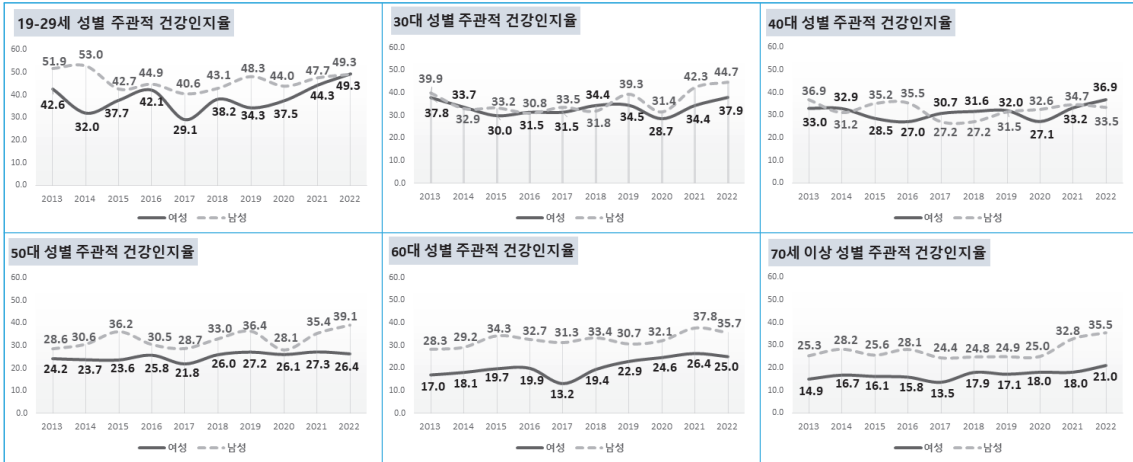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KOSIS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21&conn_path=I3, 접속일: 2024. 9. 3.)

[그림 9] 성별 주관적 건강인지율(2013-2022)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성별 연령별 주관적 건강인지율을 살펴본 결과임.

- ▶ 2013년 이래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19~29세와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음. 단, 2022년 19~29세는 여성과 남성 수치가 동일함. 그리고 여성과 남성 모두 연령이 증가하면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낮아지는 모습을 보임.
- ▶ 19~29세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주관적 건강인지율 정도가 높아 본인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며, 여성은 2019년 이후, 남성은 2020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 30~40대는 남녀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거나 30대는 2020년 이후 남녀가 모두 높아 지는데 남성의 변화 정도가 더 크고, 40대는 2020년 이후 남성은 높아지고 여성은 2021년 이후 낮아져 2022년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30~40대는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좋은 수준으로 나타나 남녀 간 격차가 줄어들면서 남녀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 50대 이상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본인의 건강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녀 간 차이가 커지는 경향을 보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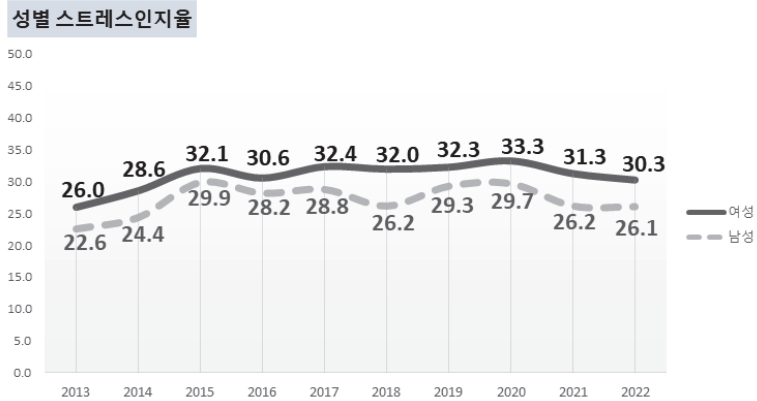
주 : 1) 주관적 건강인지율 : 평소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
 2) 표준화 : 만19세이상 분석대상자 수.
 3) 2005년 추계인구(장래인구추계, 2016.12. 공표)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KOSIS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21&conn_path=13, 접속일: 2024. 9. 3.)

[그림 10] 성별 연령별 주관적 건강인지율(2013-2022)

□ 2022년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분율을 나타내는 스트레스인지율은 남녀 모두 2020년 이후 낮아지는 추세임.

- (스트레스인지율) 2022년 스트레스인지율이 여성은 30.3%, 남성은 26.1%로 여성과 남성 간 차이는 4.2%p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스트레스인지율(대단히 많이+ 많이)이 더 높음.
 - 2021년 대비 2022년 스트레스인지율은 여성이 1.0%p, 남성이 0.1%p 감소해 남녀 모두 스트레스 인지 정도가 소폭 낮아짐.
 - 2013년 대비 2022년 스트레스인지율은 여성이 4.3%p, 남성이 3.5%p 증가했으며 2020년 이후 여성과 남성 모두 감소함.
 - * 여성 스트레스인지율(%): ('13년) 22.6% → ('17년) 28.8% → ('22년) 26.1%
 - * 남성 스트레스인지율(%): ('13년) 26.0% → ('17년) 32.4% → ('22년) 30.3%

(단위: %)



주 : 1) 스트레스인지율 :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분율.
 2) 만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3) 표준화 : 2005년 추계인구(장래인구추계, 2016.12. 공표)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KOSIS 스트레스인지율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61&conn_path=13, 접속일: 2024. 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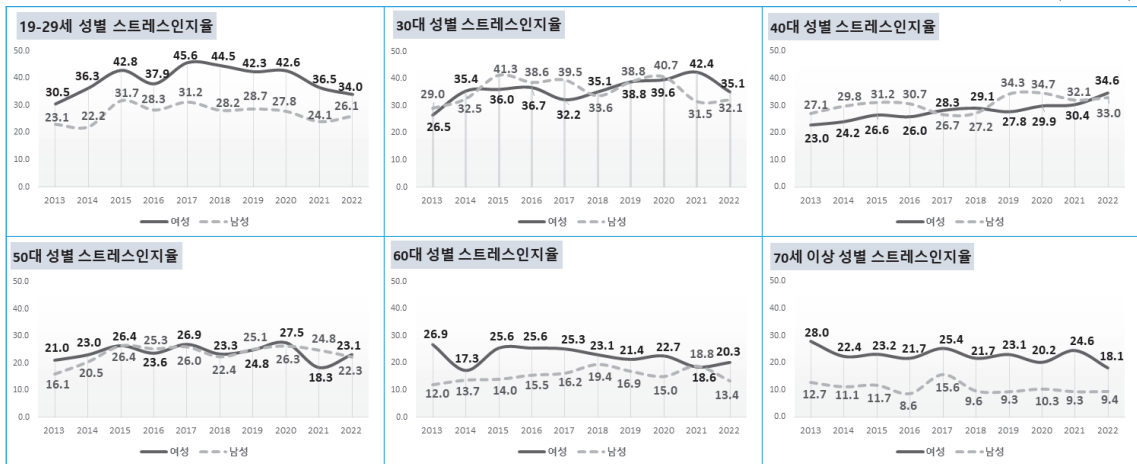
[그림 11] 성별 스트레스인지율(2013~2022)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성별 연령별 스트레스인지율을 살펴본 결과임.
 - ▶ 2013년 이래로 스트레스인지율은 19~29세와 60대 이상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단, 2021년 60대는 남성이 여성보다 0.2%p 더 높음. 30대와 50대는 남녀 사이에 뚜렷하게 높고 낮음이 드러나지 않으나 40대는 남성의 스트레스인지율이 더 높은 편임.
 - ▶ 19~29세와 70세 이상의 스트레스인지율은 여성과 남성 간 차이가 큰 편임. 19~29세의 스트레스인지율은 여성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남성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거나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격차가 크게 벌어짐. 70세 이상의 스트레스인지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남녀 모두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60대에 비해 여성은 큰 폭의 하락이 없는 반면 남성은 낮아져 남녀 간 차이가 커짐.
 - ▶ 30대의 스트레스인지율이 19~29세와 비교해 여성은 최근 시점에는 뚜렷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남성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2013년 이래로 남녀 중 뚜렷하게 높고 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음. 2021년 이후 여성은 낮아지고 남성은 높아져 2022년 비슷한 수치를 보임.
 - ▶ 40대의 스트레스인지율은 30대와 비교해서 남녀 모두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거나 2013년 이래로 여성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남성 또한 증감은 있으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50대의 스트레스인지율은 40대와 비교해서 남녀 모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남성이 좀 더 많이 낮아져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수준을 보임.

- ▶ 60대의 스트레스인지율은 여성과 남성 모두 50대에 비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성별로 보면 남성이 더 크게 낮아져 2021년을 제외하고 여성의 스트레스인 지율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음.

(단위: %)



주 : 1) 스트레스인지율 :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비율.

2) 만19세이상 분석대상자 수.

3) 표준화 : 2005년 추계인구(장래인구추계, 2016.12. 공표)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KOSIS 스트레스인지율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61&conn_path=13, 접속일: 2024. 9. 3.)

[그림 12] 성별 연령별 스트레스인지율(2013-2022)